



마모로 인해 수직 고경이 감소된 환자의 완전구강 회복 증례

장 문 숙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구치부가 상실되어 대합되지 않게 되면 환자들은 전치부로 저작을 하게 된다. 구치부를 수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전치부는 환자의 치주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과정을 겪게 된다.

치주 상태가 나쁜 경우는 전방 돌출 및 지속적인 동요도를 보이고 점차 수직 고경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치주상태가 좋은 경우는 전치부의 지속적인 마모로 역시 수직 고경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교합 평면의 조화가 무너지고 저작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수직고경의 감소가 있어 저작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적절한 교합평면을 설정하고 교합관계를 개선시켜서 심미적, 기능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직고경을 증대시킨 상태에서 수복하는 것은 이갈이나 근 피로, 치아, 근육 및 관절의 동통, 두통, 치아의 함입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시 수복물이나 splint 등을 이용한 과도기적인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인 보철수복의 상태에 환자가 적응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증례에서는 마모로 인한 교합 평면 부조화 수직 고경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구강회복술을 계획하였으며 고정성 보철물과 konus denture를 이용하여 수복하여 심미성과 기능을 회복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